한국고전연구 65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4/5~40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4.65.5

# 웹 소설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활용 양상과 의미*

## -『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를 중심으로

서보영**

<차 례>

1. 서론
2. 웹 소설『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에 나타난 고전소설 활용의 양상
3.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 활용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웹 소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전소설과 웹 소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전소설과 웹 소설의 시간적 간극만큼이나 양자를 일대일로 비교하기에는 난망한 까닭에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의 생존 방식을 전망하고 웹 소설이 고전소설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수하고 개성적인 지점을 발견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웹 소설은『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이다. 이 작품은 2021년 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었으며 고전소설 <춘향전>, <구운몽>, <박씨부인전>,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웹 소설로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한 웹 소설 창작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늠하게 하는 사례가 된다.

우선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은 내용의 변이를 넘어 작품의 형성 과정과 관련한 것들이 활용된다. 고전소설의 작가와 독자, 향유 방식도 웹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 이 논문은 2024년 2월 1일에서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5차 학술대회 "고전문학과 매체·영상·콘텐츠와의 접합·융합·확산의 쟁점들"에서 발표한 원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경기대학교 김문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소재인데 나아가 세책점, 소설가, 악플러 등 소재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웹 소설에서 선행 텍스트로서의 고전소설은 설화나 동화와 같은 '옛날 이야기'의 차원에서 소통된다.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웹 소설의 인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고전소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고전소설 인물들의 형상이나 역할, 기능도 달라지는 등의 다시쓰기를 보여준다.

한편 웹 소설은 이미 어디에선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로 기존 고전소설의 익숙한 특징들, 즉 구조나 모티프, 소재 등을 답습하며 고전소설과 융합된다. 그 결과 고전소설의 장르성이 무화된 채 계속적으로 복제되며 그 과정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한다.

끝으로 웹 소설 『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에서 고전소설의 활용이 이처럼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웹 소설 속 고전소설의 활용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웹 소설, 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 고전소설의 활용, 양상, 의미

## 1. 서론

2013년 웹 소설이라는 명칭이 출현한 이후 웹 소설은 문화 콘텐츠 향유자들의 소비 욕망과 패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웹 플랫폼의 활성화를 비롯한 문화 생산-수용의 역사적 조건들의 변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증대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웹 소설 시장의 성장, 대학에서 웹 소설 창작을 위한 교육 과정의 마련,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웹 소설에 관한 학술적 논의들과 웹 소설 창작을 위한 작법서들의 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1] 이에

1) 오태영, 「웹 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7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13-16쪽.

따라 웹 소설을 흥미와 오락, 재미와 여가 등을 위해 가볍게 소비하는 '스낵 컬쳐(Snack culture)'의 일종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며 '하나의 소비하는 상품'이자 '빅 컬쳐(Big culture)'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웹 소설을 21세기 새로운 서사 형식이자 문화 콘텐츠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지며 웹 소설에 대한 관심과 인식 역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웹 소설이 게임, 영화 등 다양한 2차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기 위한 원천 소스(Intellectual Property)를 제공한다는 점, 과거 무명작가 또는 작가지망생들로 분류되었던 작가들이 시장에서 직접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2] 물론 상업적인 가치로만 판단되는 웹 소설 시장에서 비주류는 의미부여의 기회도, 기록도 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리는 데이터 취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웹 소설 시장의 성공 논리에 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웹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능동적인 생산과 소비라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3] 이와 같은 웹 소설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수용하고 웹 소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전콘텐츠 일반론을 벗어나 웹 소설과 고전소설의 관계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고전소설을 기반으로 진행된 웹 소설에 관한 연구 현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 볼 수 있다.[4] 한 가지 방향은 고전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웹 소설에서 소위 '원전의 정신'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웹 소설 <설공찬환혼전>과 같이 고전소설 <설공찬전>을 그대로 표방하는 경우[5]가 대표적인

2) 권용현, 「연재형 콘텐츠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웹소설 시장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1),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3-4쪽.

3) 이지용, 「웹 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화연구』 70,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22, 65쪽.

4) 논의를 집약하기 위해 고전서사가 아닌 고전소설에 국한하였다.

5) 최수현, 「고전소설의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 - 웹 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예에 속한다. 고전콘텐츠 일반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고전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웹 소설의 경우, 고전소설의 표제나 주인공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이라고 해도 그것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혹은 지나치게 변이의 폭이 커서 일대일로 놓고 관계성을 탐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고전소설의 활용도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웹 소설 자체로 놓고 보자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히 고전소설을 원전으로 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다음은 고전소설이 탐구해 온 보편적인 주제들이 현대의 웹 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의미화 되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단일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고전서사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진가쟁주'에 주목하여 고전소설 <옹고집전>과 웹 소설들 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6]를 찾아볼 수 있다. 고전소설이 제기한 화두에 대해 현대의 웹 소설이 응답하는 내용과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역시 일대일의 방식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기에는 그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

가장 흔히는 중심인물이나 서사의 일부, 공간이나 제목을 차용하는 경우로 <심청전>을 활용한 웹 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겠습니다>[7]나 <춘향전>을 활용한 <울어봐, 빌어도 좋고>[8], <홍길동전>을 전면에 내세운 <소녀, 홍길동>[9]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꼬집어 언급하지

---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6) 김정희, 「웹 소설을 통해 본 '진가쟁주' 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 고전소설 <옹고집전>과 웹 소설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마지막 여행이 끝나면>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3.

7) 홍우진, 「웹 소설에 수용된 심청콘텐츠의 변모 양상 : 웹 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겠습니다>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2(2),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20.

8) 김정희, 「서사 분석 기반 주제어 설정을 통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큐레이션 가능성 - 웹 소설 <울어봐, 빌어도 좋고>, 고전소설 <춘향전>의 서사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5, 건국대학교 글로컬 문화전략연구소, 2022.

않으면 두 서사의 관련성을 한 눈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춘향'이나 '심청', '길동'과 같은 익숙한 고전소설 속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 어떤 인물도 문화·역사적으로 채워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10]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의 흔적을 찾는 것이 이처럼 난망한 까닭에 고전소설과 웹 소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11]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이다. 이미 고전콘텐츠가 고전의 현대적 이본이면서도 새로운 매체에서 구현된 별개의 작품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영화로의 변용에서부터 제기[12]되고 있는 만큼 웹 소설 역시 고전소설을 고스란히 변용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고전콘텐츠 일반이 아닌 웹 소설에 국한하며 고전소설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웹 소설에서의 활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를 둔다. 이는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의 생존 방식을 전망하는 것으로 고전소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오늘날 고전소설은 웹 소설을 통해서 독자에게 수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편린(　　)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체로서의 고전소설에 못지않게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 소설이 고전소설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수하고 개성적인 지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사 그것이 고전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도 웹 소설에서 발견되는 고전소설의 흔적을 찾는 일은 중요하고 의

9) 송명진, 「웹 소설로 진화한 로맨스의 잡식성과 그 서사적 특징-웹 소설 <소녀, 홍길동>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10) 송명진(2019), 위의 논문, 580쪽.

11) 이명현,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접점과 횡단」, 『고전과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3.

12) 정제호, 「고전의 각인, 콘텐츠의 도전 - '가능세계'의 관점에서 본 <흥부전>과 <흥부>(2018)의 서사적 성패」,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96-219쪽.

미가 있다.

2021년 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ㅁ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ㅁ[13]는 고전소설 활용의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웹 소설이다. 작가는 귀차이며, 장르는 판타지, 별점은 9.4로 네이버 시리즈에서 실시간 1위를 달성한 인기작이자 다산북스의 신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는 물론 단행본으로 출간 후에는 리디북스, 예스 24 등에서 e-book의 형태로 상품화되었다.[14] 한 사학과 대학원생이 조선 인조 재위 시대인 1639년으로 진입하면서 벌어지는 가상의 역사를 다루는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이 작품은 윤오영의 <방망이 깎는 노인>, 피천득의 <인연>과 같은 현대수필이나 정약용의 시, 이태백, 김상헌, 정몽주의 모친 이 씨가 쓴 시조, <숙영낭자전>을 비롯한 고전소설, 황석영의 <장길산>에서 설화까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학 작품들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환되는 작품의 수가 많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 속에 접목하고 있어 무릇의 대체 역사물을 표방하는 웹 소설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전소설인데 <춘향전>,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박씨부인전> 등과 같이 익히 알려진 고전소설은 물론 가상의 고전소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체 서사를 구성한다. 이 작품을 예로 들어 웹 소설에 소환된 고전소설 작품들과 고전소설이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의 활용이 가져오는 효용을 논구하겠다.

---

13) 이후 <호랑이 어사>로 칭한다.

14) 서보영, 「성이성의 현대적 스토리텔링 : 웹 소설 <호랑이 어사 조산을 뒤흔들다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56, 판소리학회, 2023, 180쪽.

## 2. 웹 소설『호랑이 어사, 조선을 뒤흔들다』에 나타난 고전소설 활용의 양상

<호랑이 어사>는 과외로 생계를 유지하던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이 떨어진 혜성에 맞아 조선 전라도의 가난한 양반인 안한수가 되고 암행어사 성이성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과 만나 국내외를 망라하는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후 자신으로 인해 변화한 현대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이다. <호랑이 어사>는 전체 299화로 단행본으로 변환하면 13권 정도의 장편인데 전체 서사를 5개로 나눌 수 있다. 각 화의 내용과 등장하는 고전소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회차 | 주요 내용 | 등장하는 고전소설 |
|---|---|---|---|
| 1 | 1~132 | 성이성과 안한수의 만남과 성이성의 죽음 | <춘향전>, <허생전>, <안선비전>, <열녀김씨전>, <박씨부인전> |
| 2 | 133~243 | 소현세자 옹립과 안한수의 활약 | <심청전> |
| 3 | 245~283 | 안한수의 양자인 길산과 그의 친구인 만중, 딸 우희의 혼인과 안한수의 죽음 | <구운몽> |
| 4 | 284~292 | [외전] 강충신의 암행 이야기 | <장화홍련전>, <강어사전> |
| 5 | 293~299 | [에필로그] 안한수가 변화된 대한제국으로 귀환하여 과거를 회상함 | |

### 1)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한 상상 : 〈춘향전〉, 〈구운몽〉, 〈박씨부인전〉

<호랑이 어사>에서 <춘향전>, <구운몽>, <박씨부인전>이 활용되는 양상은 고전소설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는 고전소설의 작가를 허구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전소설 속 인물의 실존 모델을 허구화하는 방식이다. <호랑이 어사>에서는 <춘향전>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15] '남

15) <호랑이 어사>에 등장하는 <춘향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으로 떨어진 안한수는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다 원혼이 된 춘향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난다.(2화. 족보만 남은 흙수저)

원으로(7화), 꿈꾸는 용과 봄 향기(9화), 금준미주 천인혈(12화), 범 내려온다(14화)' 등과 같은 회차 제목을 통해 <춘향전>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이 도령이 춘향을 처음 보았던 순간을 <일설 춘향전>에서 인용하였으며 암행어사 출두와 관련된 부분은 <춘향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호랑이 어사>가 <춘향전>을 활용하는 양상은 <춘향전>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사정과 관련된 것들로 일화나 설화, 가설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한다. 정리하면 하나는 성이성의 스승인 조경남이 <춘향전>을 집필하게 된 경위이며 다른 하나는 남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춘향의 원사(冤 )와 해원, 마지막으로 암행어사 출두와 관련된 것이다. 우선, <호랑이 어사>는 성이성의 '계서일고'를 바탕으로 조경남이 <춘향전> 원전의 저술자이며 성이성이 이 도령의 모델일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16]

---

② 암행어사 성이성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한수와 함께 남원으로 향한다.(7화. **남원으로**)

③ 스승인 조경남을 만나 춘향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듣게 된다.(8화. **꿈꾸는 용과 봄 향기**)

④ 춘향은 정절을 지키려다 후임 남원부사의 손에 맞아 죽었으나 병사한 것으로 어사에게 전달된다. 남원 근처에서 귀신이 출몰해 사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9화. 이야기의 뒤안길)

⑤ 어사는 병에 걸린 자신을 대신하여 안한수에게 어사출두를 부탁한다.(11화. 사형을 각오할 죄)

⑥ 안한수는 사또의 생일연에 참석한다.(12화. **금준미주 천인혈**)

⑦ 안한수는 사또로부터 푸대접을 당한 후 호랑이 탈을 쓰고 방망이를 든 채 어사로 출두한다.(13화.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이었다)

⑧ 탐관오리인 남원 부사를 벌하고 그 소문이 남원에 널리 퍼진다.(14화. **범 내려온다**)

⑨ 안한수는 조경남이 어사와 춘향과의 로맨스에 성씨를 바꾸고 어사출두 에피소드와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을 합친 <춘향전>을 지은 사실을 알게 된다. 어사는 춘향의 묘를 찾아 열녀춘향지묘를 세우고 그녀의 혼백을 위로한다.(15화. 한풀이)

⑩ 성이성은 첫사랑 춘향을 떠올리며 죽음을 맞이한다.(132화. 풍수지탄)

16) 설성경은 <춘향전>을 전라도 남원 지역에 살던 스승 조경남이 경상도 출신의 제자 성이성을 모델로 삼아 창작하여 제자와 국민에게 바친 작품으로 추정했다. 설성경,

"젊은 사람이 대답이 시원치 않구만. 참, 자네가 어사출두하면서 동헌에서 한 일들, 기록으로 남겨도 되겠는가?"

"큰 상관은 없으나 무슨 연유로 남기시려는 것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나고 자라 곧 뼈를 묻을 남원 땅에서 일어난 일일세. 잘 정리해서 후세에 남겨 본이 되도록 해야지."

그때는 몰랐다.

노인의 개인적인 저술에나 남아 후세에 그걸 읽을 자들은 후손들과 역사연구가들만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노인은 어사에게도 똑같은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어사 역시 똑같이 속아 넘어간 상태였고.

'이게 뭐야? 춘향전?'

어사와 춘향과의 로맨스를 성씨만 갈아치워 소설로 엮어 내고는 그 책의 클라이막스에 내 어사출두 에피소드를 끼워 넣을 줄이야.

변사또의 뚝배기를 몽둥이로 깨버린 이몽룡이 옥에서 구해낸 성춘향과 백년해로했다는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을 때는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었다.

그걸 항의하려 전할 글을 적고 있을 때, 남원에서 부친 편지가 도착했다. 노인의 부고(　　)와 내게 마지막으로 남겼다던 편지였다. 그의 통찰력은 이미 나를 한참 앞서있었다.

'난 그 둘이 이야기 속에서라도 행복했으면 했네.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15화. 한풀이, 5-7쪽)

인용문은 주인공인 안한수가 후일 <춘향전>의 형성 경위를 알게 된 부분으로 성이성의 스승인 조경남과 나눈 대화이다. 여기에 따르면 <춘향전>은 조경남이 제자인 성이성의 안타까운 사랑에 책임감을 느끼고 쓴 결과물이다. 조경남은 춘향이 죽었다는 사실을 과거를 보러 간 성이성에게

---

「춘향전의 원작가에 대하여」, 『비교한국학』 8,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79-81쪽.

숨겼고 그로 인해 성이성은 춘향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 춘향이 억울하게 죽음으로써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끝이 났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경남이 성이성을 대신하여 어사 노릇을 한 안한수의 활약을 부가하여 둘의 사랑을 행복한 결말로 매듭지은 것이다. 조경남이 <춘향전>의 작가라는 것, 성이성이 이몽룡의 실제 모델이라는 것은 춘향의 실존 모델설과 더불어 회자되는 추정에 불과하다.[17] 여기서는 대리 어사 이야기라는 허구를 결합하여 <춘향전>의 얼개를 형성하였다.

<호랑이 어사>에서 성이성은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조선으로 떨어진 안한수는 가장 처음으로 원혼이 된 춘향을 만나고 그녀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후 성이성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성이성이 춘향의 연인이었던 이 도령임을 알게 된다. 춘향의 원사와 해원의 내용 또한 남원에서 전해지는 설화들[18]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춘향은 이 도령에 대한 절개를 지키다 매를 맞아 죽었으며 후에 원혼이 되어 남원에 자주 출몰하여 이것이 마을의 문제로 부상하자 남원을 찾은 어사인 성이성이 이를 해결하고자 춘향의 원혼을 위로한다.

<춘향전>의 작가가 불분명한 것에 반해 <구운몽>의 작가는 김만중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그 창작의 경위는 매우 달라져 있다. <호랑이 어사>에서 김만중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저자로 조선인 최초의 유럽 유학생이자 동양인 박사이며 유능한 번역가로 등장한다. 그는 원 역사에서 대작가인데 역사가 바뀌었는데도 글 솜씨는 변하지 않는다. 김만중은 소설을 팔아 얻은 재력 덕분에 편안한 유학 생활을 했고 레이던 대학에서 딴 박사 학위로 그곳에서도 귀족 대우를 받았다. 그는 유학을 마치

---

17) 이지영, 「이야기세계와 실제세계의 관계로 본 춘향전의 성이성 모델설」, 『판소리연구』 56, 판소리학회, 2023 참고.

18) <춘향전>과 관련된 설화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석배,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0.

고 자신이 번역해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책과 더불어 '아홉 구름 이야기'를 왕에게 바친다. 중궁전으로부터 유럽 버전으로 집필했던 <구운몽>을 각색해서 다시 쓰라는 제안을 받고 쓴 글이 바로 고전소설 <구운몽>이다.

<박씨부인전>에서 우매하고 무능한 이시백의 형상은 실제 역사에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기록과 괴리를 일으킨다. 이는 역사적 인물인 이시백이 허구적 재현으로 전환되며 관습적 인물로서 기능하게 된 것[19]인데 <호랑이 어사>에서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인 이시백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되고 소설로 널리 퍼지게 되는 과정을 활용하고 있다.[20]

### 2) 고전소설의 삽화적 재구성 :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앞에서 주인공이 익히 알고 있던 고전소설의 형성 경위를 우연히 알게 되고 독자 역시 이를 통해 서사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다음에서는 웹 소설 속 인물이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을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 만나게 된다. 이는 고전소설을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 차원으로 간주하고 고전소설에 반영된 역사적 사건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에 대해 "전해 내려오던 내용에 시대적 양상을 첨가하여 재해석해 보았다.(286화. 외전3화. 장미와 연꽃에서 향기가 흘러, 27쪽)"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작품은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이다. <허생전>은 공물 매점매석의 폐단을, <심청전>은 당대의 군포 문제와 고리대금업, 인신매매 사건을, <장화홍련전>은 평안도 철산에서 일어났던 명예살인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호랑이 어사>에 나타난 각 소설의 내용을

---

19) 곽성민, 「고전서사에 나타난 이시백 캐릭터의 추이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1(42), 동남어문학회, 2016, 266쪽.

20) <박씨전>은 안 읽어본 것인가? 웬 양반댁 아녀자가 청국을 혼내주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인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남편이 돈시와 아주 똑 닮았다네. 이름도 한자만 다르지 같은 이시백이고.(105화. 소설 속 주인공, 15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1]

(가) <허생전>

한양의 성균관에서 재수로 쓸 곶감이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강빈의 명으로 공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충신과 한수, 좌명은 곶감을 구할 수 있다는 성균관 주변 마을인 반촌으로 간다. 그곳에서 변 역관을 만나 곶감을 매점매석한 사실을 확인한다. 역관인 변승업은 그들에게 청의 물품을 구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고 독점을 지시한 자가 허씨 가문의 서자인 허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112화. 허생과 변 역관) 한수는 허생의 속셈을 알기 위해 변승업의 도움으로 허생을 만난다.(113화. 반촌의 주인) 허생이 한수를 협박하고 두 패 간에 싸움이 발생한다.(114화. 검거 완료) 충신이 허생을 검거하고 한수는 세자에게 허생의 이야기를 보고한다.(115화. 하나에 셋을 더하다)

(나) <심청전>

어사가 되어 황해도 황주로 파견된 한수는 오리포 고리대금업자의 집에서 한 앳된 낭자를 만나고 구월산 화전민촌으로 데려 가려 하지만 낭자가 의심을 하고 어사는 정체를 밝힐 것인지 고민한다.(139화. 효녀) 낭자의 성은 심씨로 맹인 아버지를 바느질과 길쌈으로 봉양하였는데 황구첨정, 백골징포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가 군적에 오르며 스스로를 노비로 팔아 군포를 충당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자를 찾은 것이었다. 고리대금업자를 소개해 준 것은 몽운사의 주지로 사찰과 승려들은 인신매매의 브로커였다. 이를 안 한수는 오리포의 기와집으로 출두를 한다.(140화. 호가호위) 이어 몽운사에서 중들을 처단한다.(141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다) <장화홍련전>

한수가 네덜란드로 간 동안 충신은 평안도 철산 지역의 암행어사로 파견된다.

---

21) 논의의 편의를 위해 포함된 고전소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화의 내용을 모두 기술한 것은 아니다.

철산 부사들이 임지에서 횡사(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철산 부사인 전동흘이란 무관을 만난다.(284화. 외전1. 또 한 명의 암행어사) 철산에 가뭄이 들고 부사가 급사한 것은 귀신 때문이라는 소문을 충신은 허튼 것으로 치부한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저수지를 찾은 충신은 물에 빠진 어린 여인을 구한다. 사연을 말하지 않던 여인은 이윽고 자신의 이름이 홍련이라고 밝힌다.(285화. 외전2. 저수지의 그림자) 충신은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세를 내지 않는 배 좌수의 집을 찾아간다. 저수지에서 딸을 구하였으니 데려가라고 하지만 배 좌수는 홍련이 열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거절한다. 이는 후처의 말을 믿고 딸들에게 자결을 명했다는 홍련의 증언과 일치하였기에 충신은 이 사건이 열녀문에 따르는 혜택을 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배 좌수가 벌인 일로 짐작한다.(286화. 외전3. 장미와 연꽃에서 향기가 흘러) 충신은 어사로 출두하여 배 좌수를 심문하고 저수지에서 건진 장화의 시신을 보이고 태아가 쥐였음을 증명한다.(287화. 외전4. 의심암귀(　　)) 배 좌수는 인륜을 해치며 살인을 저지른 목적이 가문의 명예와 재산 때문이며 후처와 이복동생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한다. 사건에 대해 전동흘과 이야기를 나눈 충신은 비극적인 자매의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한다. 이후 임금은 이 사연을 소설로 기록하기 위해 작가를 궁전으로 부른다.(288화. 외전5. 네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앞선 <춘향전>의 경우처럼 각 화의 제목에서 고전소설의 제목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고전소설의 내용도 특정 부분은 그대로 인용되지만 한 가지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가)에서 안한수는 이른바 '곶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왜와 무역하는 역관인 변승업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 허생을 소개 받지만 <허생전>의 허생과 <호랑의 어사>의 허생은 다른 인물이다. 그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가문인 양천 허씨 집안의 서자로 조선에 불만을 갖고 매점매석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물로 이인(　　)이라기보다 범죄자이다.

이러한 특징은 (나)에서 강화되어 나타나는데 황해도 황주에서 만난 소녀는 심씨 처녀로 몽은사나 효녀, 맹인 아버지 등을 통해 심청으로 추측될

뿐이다. 이는 “그녀의 이름까지 내가 아는 그 고전소설의 주인공과 같지는 않겠지만(140화. 호가호위)”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몽은사 주지가 인신매매의 브로커로 등장하는 것도, 심 봉사가 군적에 올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것 역시 고전소설 <심청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그녀가 암행어사의 도움으로 인신공희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것은 당시 만연했던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시키기 위한 예로 활용된다.

(다)는 주인공 안한수가 아닌 그의 친구인 강충신이 암행어사가 되어 해결한 사건으로 외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 좌수와 그의 딸인 장화와 홍련이 등장하며 장화의 억울한 죽음 등에서 대체로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따르고 있지만, 홍련의 사연이나 배좌수의 악인 형상[22], 장화가 죽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전동흘과 강충신이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거나, 배 좌수가 두 딸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이 ‘열녀 집안’이라는 가문의 명예와 전처의 재산 때문이라는 점은 선행 텍스트와 많이 달라진 점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 (나), (다)는 모두 고전소설을 표방하는 듯 보이지만 고전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그것은 <호랑이 어사>의 핵심 모티프인 암행어사가 해결하는 각각의 사연 속 인물들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허생은 서자나 역적의 자손과 같이 사회적으로 배척된 계층으로 매점매석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심청은 맹인에게 부여되던 군포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비가 되어야 했던 인신매매의 대상이었다. 장화는 열녀 집안이라는 가문의 명성을 위해 죽음을 강요받는 명예 살인의 피해자였으며 배 좌수는 가해자였다. 이를 위해 대체 역사를 표방하

22) 딸들이 문란하게 굴었다는 후처의 중상모략을 그대로 믿고 자결을 권했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비의 모습.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태아의 시신을 가져와 혼전임신을 책망했다던 악마의 얼굴(286화. 외전3. 장미와 연꽃에서 향기가 흘러, 22쪽)

는 웹 소설에서 허생, 심청, 장화는 조선 시대 인물 중의 하나로 등장하며 그들이 겪는 사건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 3) 가상의 고전소설과 향유 문화의 구체화 : 〈안선비전〉, 〈열녀김씨전〉, 〈강어사전〉

앞서 언급한 <춘향전>, <구운몽>, <박씨부인전>,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은 제목이나 내용이 널리 알려진 고전소설이다. <호랑이 어사>에는 이 외에도 가상의 고전소설이 등장하는데 <열녀김씨전>, <안선비전>, <강어사전> 등이 그것이다. <열녀김씨전>(100화. 탐색전)은 안한수와 그녀의 아내가 되는 김하연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소설로 안한수의 제자인 요안의 첫 작품인데,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지다가 후에 <열녀김씨전>을 유통시킨 사람이 하연의 오빠인 좌명임이 드러난다.(102화. 감자 나리) 안한수가 술에 취한 다음날 친구의 동생인 하연을 만나고 청나라로 떠나게 되어 두 남녀가 잠시 이별하게 된다. 청나라에서 출세한 그가 황녀의 청혼도 마다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병에 걸려 몸져누운 하연을 구해 백년해로 한다는 결말을 담고 있다.

<안선비전>(105화. 소설 속 주인공)은 <열녀김씨전>이 인기를 끌자 출시된 속편으로 안한수의 다양한 활약을 담고 있다. 안 선비가 청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 성공하고, 청나라 황녀와 조선에 두고 온 정혼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물론 무역과 상거래를 통해 성장하는 내용, 만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에게 무거운 조세를 매기려던 청나라 관리에게 은자가 담긴 주머니를 집어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사건 등이 실려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춤이랑 굿놀이로도 변용되고 호랑이 탈을 뒤집어 쓴 어사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가 어사가 된 이야기로 바뀐다.

<강어사전>(288화. 외전5, 네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은 안한수의 친구인 강충신의 암행 소설로 조선 제일의 인쇄소 사장이자 대작가인 좌찬성이

중궁전의 명을 받아 출간하게 된다. 강충신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국 후 후금에 항복하였다는 역적의 오명을 쓰게 된 강홍립의 손자이다. 강충신은 이 소설을 첫사랑이자 소설 애호가였던 향의 무덤에 바친다.

<열녀김씨전>, <안선비전>, <강어사전>은 모두 <호랑이 어사>의 주요 인물인 김하연, 안한수, 강충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새롭게 창작된 고전소설로 전체 서사의 진행에 활용된다. <열녀김씨전>은 특히 여성독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안한수와 김하연은 유명인사가 되고 애독자들이 그들의 첫날밤을 구경하려고 장사진을 이루며 감자와 고구마를 조선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안선비전>에 묘사된 정명수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청에 붙어 나라를 해친 끼친 쥐새끼라고 욕을 하는 것 등 소설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강어사전>을 통해서는 주요 인물인 강충신의 숨은 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호랑이 어사>에는 이러한 고전소설들을 쓰는 작가와 독자, 세책점, 전기수, 출판업자 등과 같이 소설이 유통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와 작가의 말도 찾아볼 수 있다.[23] 이들은 안한수의 주변 인물로 이를테면, 작가는 그의 제자이자 후실인 요안이며, 독자는 중전이 되는 강빈이다. 청풍 김씨 집안에서는 가업으로 인쇄업을 운영하는데 그들이 바로 안한수의 장인인 김육과 친구인 좌명이다. 그들이 운영하는 세책점은 책을 빌려주는 형태로 소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곳으로 한양의 세책점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구체적인 장면으로 등장한다.

---

23) [작가의 말] 그렇게 이전에는 일부 양반층만 향유하던 문학이, 17세기를 기점으로 서민과 여성층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설을 낭독하던 전기수, 책을 빌려주던 세책가, 안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어주던 책비, 책을 들고 다니며 파는 책장수인 책쾌 등이 아마 이 시기 이후에 등장했을 것입니다.(105화. 소설 속 주인공, 20-21쪽)

한편, 책을 빌려주다 보니 여백에 낙서가 남아 돌아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는데, 그것 또한 골치라고 했다. 악플러는 이 시기에도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이 책 주인 보소. 이 책에 낙서가 많으니 다시 보수하여 세를 놓아 먹거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어미들□□.」

「들인 세에 비해 내용이 없구나, 등서(　　)하고 각판(　　)한 놈이 줄인 것이냐, 붓 든 놈이 글을 부풀린 것이냐. 네놈들의 죄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요. 이런 글을 재미있다고 보는 자들은 세낼 돈으로 의원에 가서 약을 달여 먹는 것이□□.」(115화. 하나에 셋을 더하다, 15□16쪽)

인용문은 세책점을 운영하는 어려움 중 하나로 애독자나 악플러들에게 고충을 겪는 일을 묘사한 것으로 조선시대 소설에 대한 인기와 향유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한수로부터 오빠인 요운과 함께 글을 배운 요안은 재미로 소설을 쓴 것을 시작으로 좌명과 김육의 도움으로 소설가의 길로 들어선다. 소설의 독자인 강빈은 요안의 글 솜씨를 아껴 중국에서 왕비나 후궁을 섬기며 기록과 문서를 맡아보던 여인 사관(　　)을 권하기도 한다. 이른바, 왕실과 양반층의 지지 아래 고전소설이 전성기를 이루던 '소설 시대'가 펼쳐진다. 국가적인 사업과 별개로 남녀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의 향유는 활발한데 소설가 외에도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에 관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공터에 선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떠돌며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 하나가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은 듯했다.

"에이. 뭐 결말이 그런대요? <안선비전> 뒷이야기를 들려준다기에 솔깃해서 와봤더니, 순 양반댁 도령 글공부하는 소리만 들은 것만 같드라고."

"저어기 <임진록>이라는 이야기는 사명대사님이 왜나라로 건너가서 부랄석 되에 인피 삼백 장을 받아오던데, 아조씨 말대로라믄 안 선비라는 분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청나라 가서 영 해온 게 읎지 않우야."

"막 아부지따라 춘천 갔을 때 거기 주모가 풀던 이야기가 더 재미있갑소. 한양 말쓰만 쓰지 영 맹탕이래요."

"그, 그러냐? 이 아저씨가 전기수(　　叟)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280화. 호랑이 어사 출두야, 2-3쪽)

인용문은 안한수가 강원도 암행 길에 고을의 사정을 듣기 위해 아이들을 불러 소설을 들려주는 장면으로 어사가 폐의파립(敝　　)하고 염문(　　)을 하는 모습이 <춘향전>과 흡사하다. 다만, <춘향전>에서 이 어사가 농부들을 통해 민정을 살피고 춘향의 소식을 묻는 것과 달리 <호랑이 어사>에서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말을 통해 <안선비전>이나 <임진록>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전기수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처럼 익숙함을 주는 유사한 장면을 활용하여 고전소설이 창작되는 과정과 창작의 주체와 향유층의 다양한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함으로써 서사 진행에 활용하고 있다.

## 3.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 활용의 의미

### 1) 웹 소설을 통한 고전소설 콘텐츠의 소재 확장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고전소설의 가치는 여러 논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양상으로 향유자들의 참여와 검증을 거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대중들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었고, 대중문화의 측면에서 문화적인 도식성과 환상성을 보이기 때문이다.[24] 그러나 웹 소설에서는 고전소설의 가치가 그대로 콘텐츠로서의 활용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웹 소설 역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내용을 직

24)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101-106쪽.

접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설에서 웹툰, 드라마로 각색되며 인기를 끌었던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 향유 방식, 궁녀의 공동 필사, 세책점을 통한 고전소설의 유통 방식,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 주인공을 형상화하고 긴장과 해소, 웃음을 통한 흥미를 창출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25] 또 다른 예로 웹툰이자 드라마로 성공을 거둔 <밤을 걷는 선비>에서 주인공인 조양선은 남장여인이자 책쾌(冊僧)로 궁녀들의 독서 풍습이나 중국에서 책을 수입하는 풍속이 등장하며 남녀 주인공은 서적을 매개로 만남이 이루어진다.[26] 이처럼 세책점이나 전기수, 책쾌 등과 같은 소설 향유의 문화와 관련된 소재들이 이미 활용되며 콘텐츠로서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웹 소설이 지향하는 멀티모드성(multimodality)은 연재 방식 및 서사 구성에 있어서 친숙한 서사 구성 방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학 또는 장르문학에 익숙한 소재, 모티프 등을 수용해서 조합하고, 아이콘과 대사, 일러스트 등을 통해 멀티모드적 특성을 강화한다.[27] 이러한 맥락에서 웹 소설에서는 고전소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호랑이 어사> 또한 보여주고 있다. <호랑이 어사>에서는 실체로서의 작품 외에도 작가와 독자, 향유 방식 모두가 소재가 되고 스토리텔링된다. 성이성, 김만중, 조경남, 이시백, 세책점, 소설가, 악플러 등 소설의 실제 작가 혹은 가상의 작가, 소설의 향유 문화 전반이 활용의 대상이 되는

---

25) 김문희,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연구』 5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7-180쪽.

26) 최지운, 「퓨전사극에 나타난 남장여인 캐릭터 연구-<빛나거나 미치거나>, <밤을 걷는 선비>, <화정>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6, 27쪽.

27)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 소설의 멀티모드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21(1), 대중서사학회, 2015, 263~292쪽.

것이다. 기존의 문화콘텐츠에서 고전소설의 영역이 인물이나 줄거리, 배경 등의 서사 차원에 국한된 것과 비교할 때 이는 확장된 면모이다.

그 중에서도 성이성 모델설은 1999년 KBS 역사 스페셜을 통해 방영된 이후 여러 차례 회자된 것으로 성이성 콘텐츠는 봉화군을 중심으로 관과 학계,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역사적, 문학적, 문화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웹 소설을 통해 성이성의 행적은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형상화되고 이는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성이성 콘텐츠 개발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28] 소설 속 인물의 형상을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서 흔하지만 그 경우의 초점은 실제나 소유를 밝히려 한다는 점[29]에서 웹 소설이 제시한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김만중은 17세기 소설의 발흥을 이끈 중요한 작가로 <구운몽>, <사씨남정기>와 같은 소설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을 남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썼다는 점, 한글로 쓴 문학을 옹호했다는 점, 녹록치 않은 유배 생활로 우울증을 겪었다는 점[30] 등이 거론된다. 숙종 시대를 다루는 역사 드라마 <인현왕후(MBC, 1998)>, <장희빈(KBS, 2002-2003)> 등에 등장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 웹 소설 <호랑이 어사>에서 김만중은 허구적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되는데 세 번의 유배 생활을 겪었던 실제 삶과는 정반대이다. “만중에게 실패란 없었으니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뀔 만도 했다”(265화. 두 유부남, 11쪽)는 것으로 기존에 독자가 알던 김만중에서 벗어나 그의 사연이 스토리텔링된다. 실존 인물인 김만중의 삶에 대한 제약 없는 상상력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볍게 소비되는 웹 소설이

28) 서보영(2023), 앞의 논문, 176-179쪽.

29) 김용범, 「고소설 주인공의 지역 연고성 분쟁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홍길동전과 콩쥐팥쥐전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273쪽.

30) 신재홍, 「김만중의 유배 생활과 우울증, 그리고 <구운몽> 창작」, 『고소설연구』 41, 고소설학회, 2016, 8-12쪽.

기에 용인 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조선 시대 여성 문인인 김호연재를 문화콘텐츠로 창작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31] 조선후기 여성 소설가가 존재했으며 그와 관련 작품들에 관한 자료도 적지 않은 만큼[32] 조선시대 여성의 소설 창작의 사례 역시 하나의 콘텐츠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 2) 웹 소설 속 고전소설 다시쓰기

웹 소설에서 작중 인물이 책이나 게임 혹은 드라마로 '읽었던' 작품 세계로 우연히 이동하면서 그 작품의 줄거리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되면서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를 책빙의물이라고 한다.[33]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책빙의물은 한국 장르문학의 관습을 갱신하면서 동시대 사회적 맥락 및 독자의 욕망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34] 한편 TV드라마가 판타지의 요소를 가미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식 중 하나인 빙의는 미래에서 온 영혼이 역사적 인물의 육신에 빙의되는 설정을 지닌 작품을 '대체역사 빙의물'이라 칭하며[35] 웹 소설 <호랑이 어사> 역시 여기에 속한다.

빙의물은 웹 소설은 물론 드라마, 웹툰 게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웹 소설 <사또의 여자가 되겠나이다>에서 메이크업아티스트였던 주인공

---

31) 임수정, 「조선의 여성 문인 김호연재 시의 Dance Film 콘텐츠화 과정 -Dance Film '김호연재의 비상'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86,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834쪽.

32) 정병설, 「조선조소설과 여성작가」,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전주이씨 가문 여성의 대하소설창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33)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3, 대중서사학회, 2020, 90쪽.

34)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 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53, 대중서사학회, 2020, 80쪽.

35) 최지운, 「TV드라마 속 대체역사 빙의물 연구 : <철인왕후>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55, 대중서사학회, 195-196쪽.

은 고전소설 <춘향전> 속 향단이로 빙의한다. 남원시에서 <춘향전> 홍보를 위해 창작하여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웹툰 <향단뎐> 역시 현대의 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춘향전 속의 향단에 빙의하여 사또 변학도로부터 춘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36] 고전소설 속 인물로 빙의한 것은 아니지만 춘향, 허생, 심씨 처녀,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는 모두 웹 소설에서 새롭게 창작되고 있다.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은 <호랑이 어사>의 인물인 안한수 혹은 강충신이 해결하는 사건 층위의 삽화(에피소드)로 축소되어 있다. 그런 까닭으로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웹 소설의 인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고전소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고전소설 인물들의 형상이나 역할, 기능도 달라진다. 이를테면 허생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반동 인물이 되고, 심씨 처녀는 조선의 효녀 중 한 사람으로 일반화되며 <장화홍련전>에서는 주변 인물인 배 좌수가 사건의 중심이 된다.

> 그녀의 성이 심 씨라는 것을 듣자마자 무언가 짚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까지 내가 아는 그 고전소설의 주인공과 같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 나는 그 고전소설의 본( )이 된 이야기 중 하나를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 추측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다.
> 물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소설의 내용과는 영 딴판이긴 했다. 아마 이야기가 민담이, 설화가 되고, 소설로까지 변하면서, 다분히 미화된 바가 있었겠지.(140화. 호가호위, 4쪽)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는 <호랑이 어사> 속 심씨 처녀의 이야기를 고전소설 <심청전>의 본( )이 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소설의

36) 남원시, 창작웹툰 <향단뎐> 정식 연재(2024.4.5.) https://www.namwon.go.kr/board/view.do?menuCd=DOM_000000202002002000&boardId=BBS_0000043&dataSid=359835 (2024.5.13. 최종확인)

내용이 되기 전, 민담과 설화 이전의 어떤 사건에 관한 언급이라며 고전소설 <심청전>과 거리를 둔다. 설화나 민담, 고전소설의 경계를 무화하는 작가의 의도는 작가의 말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37]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의 장르나 형식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고전소설은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을 바로 웹 소설 고유의 다시쓰기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웹 소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작품의 '주인공' 혹은 작품의 '작가'가 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곧 기존에 주어진 이야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려는 욕구가 등장해야 하는데, 이 욕구는 기존 작품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독자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로 번졌을 때 가능하다.[38] 웹 소설에서 활용된 이상 고전소설의 기의나 기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은 실체로서의 고전소설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갖는 인식과 지식들 안에서 소통되고 합의되기 때문이다. 웹 소설 안에서 고전소설은 각 작품들에 대해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의 지평 안에서 다시쓰기의 가능성이 결정된다.

웹 소설 <호랑이 어사>의 경우,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이 다시 쓰인 이유는 독자에게 <허생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을 소설적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이 소설이 대체 역사물을 표방하며 작품의 주된 특징으로 고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 <허생전>의 등장인물, 허생에게 은 만 냥을 쉽게 꾸어주었던 변 부자는 실제 모델이 존재합니다. 작가인 연암 박지원이 <옥갑야화>의 서문에서 밝힌 바에

37) [작가의 말] 국문학계에서는 조선 후기에 고전소설로서 <심청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원형이 된 더 이전의 설화들에 조선 후기의 배경 설정이 합쳐지면서 일어난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소설가 최인훈 씨가 <심청전>을 모티프로 창작한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에서도 그러하고요.(140화. 호가호위, 19-20쪽)

38) 안상원(2020), 앞의 논문, 92쪽.

의하면, 변승업 본인 혹은 조부나 부친에서 모티프를 따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허생도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있고, 동시기에 존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서 창작된 파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비슷한 시기 공물을 매점매석하는 폐단에 대해 사간원에서 상소한 내역이 있더군요.(112화. 허생과 변 역관, 18쪽)

인용문은 <허생전>에 대한 [작가의 말]의 일부분이다. 작가는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설인 <허생전>을 선택하고 [작가의 말]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실제 모델을 두고 지어진 것임을 언급한다. 또한 이것이 <허생전>의 작가가 밝힌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끝으로 왕조실록과 같은 역사 자료를 들어 고증을 한다. 고전소설이 역사적 체험이나 전언, 기록을 수용하여 형성된다고 해도 사실성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험을 통해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39], 고증의 범위가 독자의 개연성 안에서 용인 가능한 설명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고증'의 본질인 객관성과 진실성, '작가'가 갖는 위상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이용한다.

웹 소설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읽기 습관에 맞춰 생산 유통된 소설이다. 그러므로 웹 소설에 의해 호명된 역사 또한 디지털 내러티브의 읽기 습관에 부합하는 역사성이다.[40] 웹 소설에서의 고전소설도 웹 소설의 방식에 따라 호명되는데 <호랑이 어사>에서 고전소설은 작가의 입장에서 고증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이면서 인물의 입장에서는 낯선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며 독자에게는 익숙한 것을 환기하여 서사에 진입하도록 하는 디딤돌이다. 이러한 활용의 목적을 만족시킨다면 고전소설의 효용은

39)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93쪽.

40) 송명진, 「역사 웹 소설의 역사성 연구 - 유오디아 <광해의 연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 국어국문학회, 2022, 341-342쪽.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고전소설이 웹 소설 콘텐츠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은 역설적으로 '고전의 권위'나 '원전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웹 소설에서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고전'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 고전소설의 고전성이란 그것의 당대의 문화를 수용하며 지속적으로 변모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고전의 가치는 보존이나 전승이 아니라 문화적 재맥락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41] 고전소설의 상당수가 통속문학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로맨스, 액션, 코미디, 역사 등의 장르와의 관련성 속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다[42]는 주장은 적어도 웹 소설 안에서는 지극히 유효하다.

### 3) 웹 소설과 고전소설의 서사적 융합

웹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 장르 간의 교섭이 빈번하다 것이다. 따라서 웹 소설에서 사용하는 장르라는 개념은 문학 이론에서 사용하는 장르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43] 웹소설의 서사는 다양한 원천에서 모든 모티프를 유연하게 흡수하며 발전해 왔다. 때로는 세계관이 충돌할 만큼 설정이 복잡해지는 데도 여전히 웹소설 서사 특유의 빠른 전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독자들이 장르적 문법에 익숙해져 있는 동시에 그것이 이미 어디에선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인 까닭이다.[44] 고전소설은 독자에게 '어디선가 경험했던 이야기들'로 적합하다.

---

41) 서보영, 「고전소설 다시쓰기의 전통과 국어교육적 의미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9, 144쪽.

42) 이지영, 「통속문화의 맥락에서 접근한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11-120쪽.

43) 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6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50-51쪽.

44) 박수미, 「웹소설 서사의 파격성과 보수성」, 『한국문예비평연구』 7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47쪽.

흔히, 남녀이합과 친소의 주제는 고전소설에서는 애정서사를 통해 통속소설에서는 염정소설을 통해 계승되어 왔으며 특히 웹 소설에서는 '남장여자', '신분을 초월한 사랑', '신분 상승' 등 애정서사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웹 소설은 이와 같은 컨버전스(convergence)를 통해 새로운 형식을 덧입기도 하고 새로운 장르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역시 독자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45]

웹 소설 속에서 고전소설은 고전의 무게를 벗고 하나의 이야기로 수용되고 이러한 다시쓰기는 가상의 고전소설의 생산으로 확산된다. <안선비전>, <열녀김씨전>, <강어사전>와 같은 가상의 고전소설들은 제목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소설 내용의 일부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기지 않고 웹 소설의 서사로 수용된다. 또한 이 고전소설이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이 서사 내적으로도 개연성을 갖추며 언론의 역할을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안선비전>, <열녀김씨전>, <강어사전>이 고전소설의 구조나 모티프, 소재 등을 답습을 통해 독자에게 익숙한 미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웹 소설과 한국형 영웅 서사가 상통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된 바[46]가 있는데 <호랑이 어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호랑이 어사>는 가상의 인물인 안한수의 영웅담으로 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들을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라거나,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는 것,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는 것, 계속되는 위기가 반복되는 것,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

45) 한혜원·김유나(2015), 앞의 논문, 278쪽.

46) 김정희, 「웹 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본 한국형 영웅서사의 원형 -<주몽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을」, 『문화콘텐츠연구』 27,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3, 66쪽.

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갑자기 낯선 조선으로 이동한 것이 위기라면, 주변 조력자들과의 영향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미래에서 온 인물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축적된 경험이 탁월한 능력을 대신한다. 승상의 딸인 하연과 결혼하면서 힘을 얻게 된다는 점, 장인인 김육이나 박연 역시 조력자의 한 사람으로 안한수의 활약을 돕는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여러 번의 전쟁이 등장하며 이를 승리로 이끌며 국가적인 영웅이 된다는 점에서도 영웅소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안한수가 죽는 날 "자정이 가까운 무렵, 하늘에서 빛나던 별 하나가 꼬리를 물고 북서쪽을 향해 낙하한다(281화. 귀천, 24쪽)"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영웅 소설의 영웅 형상에 매우 근접하게 된다.

웹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회귀' 모티프는 서구 문화권에서 종종 논의되던 모험과 입사구조뿐 아니라, 한국고전의 민담이나 설화 등에서 발견되는 몽은담, 적강모티프, 재난서사 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자기 삶'에 '재진입'하는 서사구조로 확장 가능하다.[47] <호랑이 어사>에서 '회귀' 모티프는 "조선에 떨어지다"는 제목과 같이 적강에 더 근접해 있다. 뚜렷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이 낯선 세계로 던져지고 그가 조선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된 것은 "어차피 조선시대에 덜렁 떨어진 이상 좋은 선택지는 없었(4화. 구름이 머문 봉우리, 운봉현, 5쪽)"기 때문이다. 현재(대한민국)-과거(조선)-미래(대한제국)라는 각 세계는 직접 교섭하지 않지만 선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과거의 조선이 미래의 대한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과거-미래는 인물 간의 관계로도 연결되는데 현재의 후배는 과거의 청실 황녀였던 마카타였다가 미래의 후배가 되고 과거의 요안은 미래의 얀 교수의 딸로 만나 서로의 전생을 이야기한다.

암행어사는 암행어사 소설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정도[48]로 고전소설

47) 안상원, 「한국 웹 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83쪽.

에서 흔한 소재이자 모티프이다. 암행어사 이야기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웹툰의 원천소재로 지적된 바 있으며[49] 여러 웹 소설에서도 즐겨 활용된다. 웹 소설에서 암행어사 모티프가 나타는 작품으로는 '초코숲, ▫암행어사의 이중생활▫(문피아, 2023), 킹네이크, ▫소설 속 암행어사가 되었다▫(네이버, 2022), 원종, ▫암행어사 공주▫, (네이버, 2022), 김정미, ▫내 사랑 암행어사▫, (네이버, 2016), 김정미, ▫내 사랑 암행어사▫, (네이버, 2016) 등으로 로맨스와 판타지를 가리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안한수가 암행어사를 만나며 "암행어사들이 험한 지방에서 구르고 고생했다지만 그건 왕의 시선이고, 적어도 밥 굶을 일은 없고 아프면 한약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4화. 구름이 머무는 봉우리, 운봉현, 5쪽)"란 이유로 성이성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성이성의 암행 이야기와 그가 죽은 후 안한수의 암행 이야기, 그리고 서사가 종료된 후 강충신의 암행 이야기가 부가된다. 그 중 <강어사전>은 바로 강충신의 암행 이야기를 외전으로 분리한 것이다. 성이성의 암행 이야기에서 그가 해결하는 사건은 춘향과 관련하여 탐관오리를 징치하는 것이며, 안한수의 암행 이야기에서 그가 해결하는 사건은 심청과 관련하여 황구첨정과 백골징포를 바로 잡는 것, 강충신의 암행 이야기에서 그가 해결하는 사건은 장화의 억울한 죽음이다.

## 4. 결론

이 연구는 웹 소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고전콘텐츠 일반

48) 암행어사가 작중인물로 등장하여 스토리 전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소설을 암행어사 소설로 보고 <월봉기>, <춘향전>, <박문수전>, <삼쾌정> 등을 암행어사 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37, 한민족어문학회, 2000, 231-238쪽.

49) 유광수, 「암행어사 이야기의 현재적 적용과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하여 -<신 암행어사>를 대상으로」,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301-328쪽.

론을 좀 더 초점화하여 웹 소설과 고전소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전소설을 수용한 웹 소설을 고전소설의 현대적 이본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고 해도 양자를 일대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까닭에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의 생존 방식을 전망하고 웹 소설이 고전소설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수하고 개성적인 지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웹 소설 <호랑이 어사>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직간접적으로 작품 속에 접목하고 있어 여타의 웹 소설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웹 소설 시장에서 성공의 지표로 간주되는 유료화나 장편화로의 전환, 높은 독자의 평점, e-book으로의 출간에 비추어 볼 때 인기 있는 웹 소설로 안착하였기에 고전소설을 활용한 웹 소설 창작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적합하다.

웹 소설에서 고전소설은 실체로서의 작품 외에도 고전소설의 근원이나 형성과 관련한 것들이 활용된다. <춘향전> 속 이도령의 모델인 성이성이나 <구운몽>의 실제 작가인 김만중, <박씨부인전> 속 역사적 인물인 이시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고전소설의 작가와 독자, 향유 방식도 웹 소설에서 활용한 콘텐츠인데 세책점, 소설가, 악플러 등 소설의 실제 작가 혹은 가상의 작가, 소설의 향유 문화 전반이 활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문화콘텐츠에서 고전소설의 영역이 인물이나 줄거리, 배경 등의 서사 차원에 국한된 것과 비교할 때 웹 소설을 통한 고전콘텐츠의 소재 확장을 기대하게 한다.

다음으로 웹 소설 속에서는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을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 만날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을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 차원으로 간주하고 고전소설에 반영된 역사적 사건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는 웹 소설 속에서 다시 쓰인 고전소설이다. 허생은 서자나 역적의 자손과 같이 사회적으로 배척된 계층이며 심청은 조선 시대 군포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비가 되어야 했던 인신매매의 대상이었다. 장화는 열녀 집안이라는 가문의 명성을 위해 죽음을 강요받는 명예 살인의 피해자이다.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웹 소설의 인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고전소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고전소설 인물들의 형상이나 역할, 기능도 달라진다. 이를테면 허생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반동 인물이 되고, 심청은 조선의 효녀 중 한 사람으로 일반화되며 주변 인물인 배 좌수가 사건의 중심이 된다. 이는 선행 텍스트로서의 고전소설이 설화나 동화와 같은 '옛날이야기'의 차원에서 소통되며 언제든 다시 쓰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한편 고전소설은 웹 소설 속에서 새롭게 창작되기도 하는데 <열녀김씨전>, <안선비전>, <강어사전> 등이 그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안선비전>, <열녀김씨전>, <강어사전>이 독자에게 익숙한 미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의 장르성이나 특성은 무화되고 그것이 고전소설이냐 설화냐 옛이야기냐를 구별하지 않고 웹 소설에서 활용되고 융합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끝으로 <호랑이 어사>는 여타의 다양한 고전소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웹 소설이다.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호랑이 어사>의 작가인 귀차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 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호랑이 어사>는 작가인 귀차의 데뷔작으로 웹 소설이 다양하지 않던 시절, 대체 역사물로 웹 소설에 입문한 후 수작과 명작들을 모두 읽고 난 그는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어져 취미로 웹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가는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였다. 대학생 시절에도 신화, 전설, 민담 쪽에 관심이 많았으며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국어사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소설의 발달과 세책점 등 소설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공 지식이 유용했다고 했다. 웹 소설 <호랑이 어사>에서 고전소설의 활용이 이처럼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작가의 역량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웹 소설과 고전소설의 회우가 빈번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곽성민, 고전서사에 나타난 이시백 캐릭터의 추이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1(42), 동남어문학회, 2016, 249-270쪽.

권용현, 연재형 콘텐츠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웹소설 시장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1),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1-32쪽.

김문희,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연구』 5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8-189쪽.

김석배,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0, 189-210쪽.

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6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37-56쪽.

김용범, 고소설 주인공의 지역 연고성 분쟁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홍길동전과 콩쥐팥쥐전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257-278쪽.

김정희, 서사 분석 기반 주제어 설정을 통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큐레이션 가능성 웹 소설 <울어봐, 빌어도 좋고>, 고전소설 <춘향전>의 서사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5, 건국대학교 글로컬 문화전략연구소, 2022, 251-292쪽.

김정희, 웹 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본 한국형 영웅서사의 원형 - <주몽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을, 『문화콘텐츠연구』 27,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3, 35-73쪽.

김정희, 웹 소설을 통해 본 '진가쟁주' 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 고전소설 <옹고집전>과 웹 소설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마지막 여행이 끝나면>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3, 69-107쪽.

박수미, 웹소설 서사의 파격성과 보수성, 『한국문예비평연구』 7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35-60쪽.

서보영, 고전소설 다시쓰기의 전통과 국어교육적 의미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9, 121-151쪽.

서보영, 성이성의 현대적 스토리텔링 : 웹 소설 <호랑이 어사 조산을 뒤흔들다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56, 판소리학회, 2023, 173-208쪽.

설성경, 춘향전의 원작가에 대하여, 『비교한국학』 8,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77-88쪽.
송명진, □역사 웹 소설의 역사성 연구 □유오디아 <광해의 연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 국어국문학회, 2022, 327-352쪽.
송명진, □웹 소설로 진화한 로맨스의 잡식성과 그 서사적 특징-웹 소설 <소녀, 홍길동>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573-597쪽.
신재홍, □김만중의 유배 생활과 우울증, 그리고 <구운몽> 창작□, 『고소설연구』 41, 고소설학회, 2016, 5-37쪽.
안상원, □한국 웹 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3, 대중서사학회, 2020, 87-120쪽.
오태영, □웹 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7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11-45쪽.
유광수, □암행어사 이야기의 현재적 적용과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하여 -<신암행어사>를 대상으로□,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301-328쪽.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53,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37, 한민족어문학회, 2000, 231-238쪽.
이명현,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접점과 횡단□, 『고전과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3, 7-32쪽.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95-124쪽.
이지영, □이야기세계와 실제세계의 관계로 본 춘향전의 성이성 모델설□, 『판소리연구』 56, 판소리학회, 2023, 209-256쪽.
이지영, □통속문화의 맥락에서 접근한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99-125쪽.
이지용, □웹 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화연구』 70,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22, 47-72쪽.
임수정, □조선의 여성 문인 김호연재 시의 Dance Film 콘텐츠화 과정 □Dance Film '김호연재의 비상'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86, 문화와융합학회, 2021, 833-854쪽.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87-116쪽.

정병설, □조선조소설과 여성작가□,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15-22쪽.

정제호, □고전의 각인, 콘텐츠의 도전 □‘가능세계’의 관점에서 본 <홍부전>과 <홍부>(2018)의 서사적 성패□,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97-219쪽.

최수현, □고전소설의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 □웹 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155-178쪽.

최지운, □TV드라마 속 대체역사 빙의물 연구 : <철인왕후>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55, 대중서사학회, 2022, 193-211쪽.

최지운, □퓨전사극에 나타난 남장여인 캐릭터 연구-<빛나거나 미치거나>, <밤을 걷는 선비>, <화정>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6, 23-46쪽.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 소설의 멀티모드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21(1), 대중서사학회, 2015, 263□293쪽.

홍우진, □웹 소설에 수용된 심청콘텐츠의 변모 양상 -웹 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겠습니다>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2(2),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20, 84-88쪽.

남원시, 창작웹툰 <향단뎐> 정식 연재(2024.4.5.)
https://www.namwon.go.kr/board/view.do?menuCd=DOM_000000202002002000&boardId=BBS_0000043&dataSid=359835 (2024.5.13. 최종확인)

ABSTRACT

# A Study on the Use and Meaning of Classical Novels in Web Novels
## -Focusing on "Tiger Eosa Shakes Joseon."

Seo, Bo-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ical novels and web novels in the context of the changing interest in and awareness of the latter. Due to the difficulties of directly comparing classical novels and web novels, we considered how classical novels could be utilized in web novels. This study sought to predict the methods by which classical novels survive in web novels and to discover unique and distinct aspects of their adaptation as web novels.

The web novel selected for this study is "Tiger Eosa Shakes Joseon." Serialized from February 10, 2021, to February 8, 2022, on Naver and Kakao Page, this work achieved success as a web novel through storytelling that relied on classical novel techniques, indicating a positive outlook for web novel creation utilizing classical novels.

First, classical novels are utilized in web novels regarding the origin and formation of the work. Additionally, elements such as the author and readership of classical novels and their consumption methods are observed in web novels. Lending libraries, novelists, critics, and other aspects of novel culture offer possibilities for this type of adaptation.

Next, depending on the genre of web novels, classical novels are regard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facts or tales, with attention to the historical events reflected in classical novels. As classical novels are communicated in the realm of "old stories" such as fables or fairy tales, characters from classical novels form relationships with characters from web novels, leading to a narrative progression different from that of classical novels, with changes in the appearance, role, and function.

Moreover, classical novels are newly created within web novels through

the reiteration of familiar characteristics, such as structure, motifs, and themes. This is due to the multimodality pursued by web novels, in which the genre of classical novels is continuously reproduced with slight differences. Finally, the diverse utilization of classical novels in the web novel “Tiger Eosa Shakes Joseon” fundamentally stems from the capabilities of the author.

Key Words web novels, Tiger Eosa Shakes Joseon, classical novels, the use, the meaning

논문투고일: 2024.03.15.
심사완료일: 2024.05.05.
게재확정일: 2024.05.08.